

## 임상수의사 토론회 결과

지는 8월 12일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김태웅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을 초청하여 산업동물 임상토론회를 가졌다. 경남지역 임상수의사 및 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및 HPAI 방역 대책과 방역현장의 현안문제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.

### 예방접종관리

- 각 시·군별로 임상수의사가 포함된 예방접종반을 편성(수의사, 보정보조, 기록관리)하여 수의사 감독하에 접종
- 특히 한우의 경우 수의사가 직접 예방접종을 놓도록 함
- 탄저·기종저, 전염성비관염, 유행열, 아까바네병, 광견병 예방접종도 개선

### 예방접종 시술비

- 예방접종 시술비의 일부는 국비지원하고, 시술비 지급기준을 (브루셀라 채혈비 두당 7천원)을 정하여 시·도에 시달 필요
- 소규모 사육 농가(20두 이하)에 대한 예방접종시 두당 시술비 외에 농가 호당 별도의 출장비 (약 2만원) 지급

### 유·사산 발생시 보상금 지급

- 백신접종후 유·사산 발생시 수의사의 검진에 따라 백신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경우 제한적 보상이 필요

### TB 검사

- 한우의 결핵검사를 임상수의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정책 반영

### 닭, 오리 전염병 예방

- 올해 HPAI발생시 적용한 농장예찰증명서(출하 전 임상수의사가 실시)제도를 더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

### 소 진료비의 50%를 도비로 지원하는 충남의 축산정책을 전국 확산

- 아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, 성과가 좋아 충남도 전체에 적용하고 있음
- 축산농가는 자가진료를 자제하고 질병초기에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함에 따라 조기진료에 의한 진료비절감 효과도 증대

### 관남 광견병 예방접종제도 개선

- 백신은 국,도,시,군비로 구매되나, 접종비는 시,군비로 지급함에 따라 전국 시,군별 접종비가 무료~5,00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고, 적정시술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
- 백신접종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,도에 지시하거나
- 광견병 백신을 관에서 무상공급하지 말고, 수의사회를 통하여 동물병원으로 공급하고 소유주는 유상접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

###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개선

-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, 기존의 소브루셀라 검사증명서에 구제역 예방접종난만 추가하여 활용

### 폐사우(牛)처리절차 개선

- 폐사우(牛)발생시 축주가 축협에 통보하면 소이력추적시스템에서 바로 사망처리됨으로써 사망원인(전염병, 밀도살)이 은 폐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의 검진 후 사망 신고 및 처리